

순천시 '생태·문화' 접목...지속가능 교육 생태계 구축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2028년까지 시비 등 298억원 투입 인재양성특구 조성 등 3대 전략 추진 초·중·고 취약층 '교육바우처' 지원도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발맞춰 지역 기반의 특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생태와 문화를 접목한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순천형 인재 양성 특구 조성, 학생 중심 학습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복지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시비

81억원을 포함한 총 298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미래 전략 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교육과정'을 신설, 애니메이션과 웹툰 분야의 진로 탐색 및 지역 대학·기업 연계 체험을 선도적으로 이끈다.

또한 순천만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와 순천만' 특화 과정을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키우고, 내 고장 순천 바로 알기, 미래정원사 양성, 특성화고와 대학을 잇는 직업 교육 등 다채로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수 인재가 순천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공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의 교육 참여도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엄마품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는 공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순천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마을 연계 교



최근 '내고장 순천 바로알기'에 참가한 관내 중학생들이 순천 향교를 방문해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육을 활성화하고, 기후 행동 실천 및 마을 개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학생 자치 특색 프로그램'과 마을 배움터 운영 등 지역과 학교

가 상생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교

육 복지 시책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4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일괄 지원한다.

사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1만7천원, 중·고등학교 14만3천원 규모의 '교육 바우처'를 별도로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무상 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 적응 지원, 위기 학생 맞춤형 관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저소득층 교육 급여 지급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복지 방안도 함께 가동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교육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척도"라며 "지역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 정책과 빈틈없는 복지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수준 높은 교육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 기자>

고흥군민 기증 유물...지역 생활·문화 정체성 규명

분청문화박물관 기증 운동 추진 올해 사료 70점 접수 성과 입증 7월5일까지 2022-2024 특별전

고흥군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공공 자산화를 위해 범군민 유물 기증 운동과 특별전을 개최한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 중인 사료 중 보존 환경이 열악하거나 훼손 우려가 큰 유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시·연구 목적의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군민 유물 기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에만 총 70점의 의미 있는 지역 사료가 새롭게 박물관에 접수됐다.

특히 과거 1차 기증에 이어 올해 재차 기증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확산하는 추세로, 확보된 기증 자료는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정밀한 기록화 과정을 거쳐 지역 생활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핵심 사료로 활용된다.

박물관 측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핵심 운영 과제로 삼고 기증 증서 수여, 박물관 내 기증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가 올해 신규 유물 기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명예의 전당 등재, 군 주관 주요 행사 초청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증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은 그동안 수집된 기증 유물의 사료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오는 7월5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고흥의 보물, 함께 있다-박물관 2022-20

24년 기증특별전'을 운영 중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사소한 생활 유물 하나에도 그 시대의 고유한 삶의 궤적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개인의 소장품이 지역 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공공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유물 기증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보성 '그린다향' 韓소비자평가 우수업체 선정

말차 음료·디저트 등 호평

보성군은 20일 "군이 직영하는 보체 내 카페 '그린다향'이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한 '2026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부문에서 상위 0.3% 이내 우수업체로 최종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포털사이

트 리뷰와 만족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위 32.97% 후보군을 1차 선별한 뒤 진행됐으며, 이후 제품 만족도, 시설 편의성, 직원 친절도, 인테리어 등 6개 핵심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린다향은 건강과 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품질 보성산 말차를 접목한 말차크림라떼 등 음료 46종과 디저트 7종을 다채롭게 선보여 전 평가 지표에서 고른

상위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최근 건강과 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소비 경향이 확산돼 고품질 원료 기반의 보성말차음료·디저트가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명혁 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매장을 직접 찾은 고객들의 생생한 평가로 선정된 상이다 더욱 뜻깊다"며 "오는 5월1일 개막하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보성 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보고회

인증 연구용역 보고회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와 4개년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력 기구 위원 위촉식과 아동 환경 종합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실



질적인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 목표를 구체화하고 내실 있는 4개년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박은희 향촌복지과장은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분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제8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내달 29일까지 정책 제안 등 역할

화순군은 20일 "다음 달 29일까지 '2026년 제8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원 지원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7세부터 18세 이하(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해당) 아동·청소년이다.

선발된 의원들은 오는 6월 아동권리교육 이수 시작을 7월 위촉식을 거쳐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어 8·9월 정기회의 및 지역 탐방, 11월 모의회의 체제 및 군의원 간담회, 12월 해단식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과 함께 우수 활동자 군수 표창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해 제7대 의회는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이 확대, 마을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등 체험 정책을 제안해 실제 군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가족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관리의 주체이자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오늘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여수시는 20일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선불카드'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불카드 배부는 지역농어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권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갖춰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지급된 카드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산업, 온라인 쇼핑물 등을 제외한 여수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기한 경과 시 잔액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연내에 전액 소비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여수 시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선불카드 방식이 대상자들의 결제 편의를 대폭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카드 배부와 사용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최근 장흥 안양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군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 운영

초·중 8개교 294명 대상

장흥군은 20일 "초·중학교 8개교 재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전문 작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교실은 지역 문학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감수성을 키우고 일상 속 문학 향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근간으로 삼아, 학교급별 발달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우리 동네

설화' 중심의 나만의 그림책 제작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중학생 대상 교육은 단순로운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음악이 어우러진 작곡가의 만남 세션으로 기획됐으며, 문화와 공연 예술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입체적인 감성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현장형 사업을 통해 미래 문학 창작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기 표현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친근하게 접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학 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